[인문학 강연 기획안]

화요일 밤, 책장을 넘기듯 '이천'

미식과 예술, 삶과 사랑으로 읽어내는 우리 동네 인문학 기행

1. 강연 개요

강연 제목	화요일 밤, 책장을 넘기듯 '이천'
강연 부제	미식과 예술, 삶과 사랑으로 읽어내는 우리 동네 인문학
강 사 명	최석재 (여행작가, "그립다면 한번쯤 이천" 저자)
운영 횟수	총 4회차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회당 90분~120분 구성)
강연 대상	이천의 일상 속 숨은 매력과 인문학적 이야기를 알고 싶은 시민 누구나
핵심 테마	미식(음식) · 예술(문학/영화) · 산책(공간/명소) · 삶(역사/사랑)

2. 기획 의도 및 배경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출퇴근길, 너무나 익숙해서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리 동네 '이천'을 한 권의 책처럼 천천히 넘겨보며 읽어내는 시간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강단 인문학에서 벗어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음식(미식)", 감성을 채우는 "문학과 영화(예술)", 주말에 걸어보는 "풍경(산책)",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와 온기(삶)"라는 네 가지 친숙한 시선으로 이천을 새롭게 조명합니다.

화요일 밤의 여유로운 호흡 속에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행복과 낭만을 재발견하는 지역 밀착형 인문학 강연입니다.

3. 전체 커리큘럼 요약 (총 4강)

회차	강연 주제 및 부제	기본 내용
1강	식탁 위의 역사, 입안 가득 퍼지는 이천의 맛 (이천의 음식이야기와 찐맛집)	이천의 역사와 그에 연관된 음식이야기 그리고 이천 맛집에 대한 이야기
2강	이천, 읽고 보고 먹고 사랑하라! (문학작품과 영화의 시선이 닿은 이천이야기)	문학작품, 영화와 연결된 이천의 숨겨진 이야기들
3강	이천, 어디까지 가봤니? (알면 더 매력적인 이천 숨은 이야기와 주말 나들이 명소)	이천의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갈 수 있는 이천의 명소를 소개
4강	삶과 사랑, 그리고 이천 이야기 (어제와 오늘을 잇는 이천의 역사와 사랑 이야기)	옛 이천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